

#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지



제주는 원나라에 맞서 싸웠던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곳이다. 항몽유적지와 향파두리성에는 제주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삼별초가 남긴 역사의 숨결이 남아있다.



**항몽로**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75-2 ~ 애월읍 고성리 889-1(약 6km)

**향파두리로**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893-1 ~ 애월읍 유수암리 2019-1(약 1.8km)

**상귀장수물길**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94-2 ~ 애월읍 상귀리 954-3(약 0.9km)

**유수암로**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88-1 ~ 애월읍 유수암리 1381-7(약 2.4km)

**광성로**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53-3 ~ 애월읍 상귀리 804-14(약 3.5km)

**광령자종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798-9 ~ 애월읍 광령리 3757-1(약 0.6km)

**장소로** |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123-2 ~ 애월읍 소길리 산195(약 5.4km)

**녹고메길**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073-4 ~ 애월읍 유수암리 산107-2(약 1.9km)

## 항몽로 / 항파두리로 | 삼별초와 대몽항쟁



항파두리성

항몽로는 고려시대 원나라의 침입에 맞서 삼별초가 최후까지 항쟁을 벌인 항몽유적지가 있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삼별초는 진도를 근거지로 원나라에 항전하다 관군의 공격에 진도가 함락되자, 1271년 김통정 장군을 필두로 남아있는 병력이 제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삼별초군은 항파두리성을 쌓고, 해안가에 환해장성을 보수하면서 장기적인 항쟁에 대비했다.

항몽로에서 서쪽으로 갈라지는 **항파두리로**는 삼별초가 쌓았던 항파두리성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삼별초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 성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었고, 외성의 길이가 15km에 이를 정도였다. 삼별초가 제주에 정착을 하자 1273년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은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해 제주에 군사를 보냈다. 삼별초는 제주 곳곳에서 연합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원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제주를 직접 관할했다. 이때부터 약 100년간 제주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삼별초의 항쟁은 제주에 원나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계기가 되면서 제주의 역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항파두리성 주변에는 항몽유적지를 조성해 원나라에 끝까지 항쟁했던 삼별초의 뜻을 기리고 있다.

## 상귀장수물길 / 유수암로 | 장수물과 유수암천

**상귀장수물길**은 전설 속 장수물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제주에서 삼별초하면 김통정 장군에 대한 전설을 빼놓을 수 없다. 항파두리성 주변에는 여러 곳에서 김통정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장수물도 그 중 하나이다.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패해 쫓기던 김통정 장군이 성을 뛰어넘다가 패인 발자국에서 솟는 물이 바로 장수물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김통정 장군이 연합군의 장수와 도술대결에서 패배하자 죽어가면서 “내 백성일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 하며 발로 바위를 팡 찍었더니 바위가 움푹 파이고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한다.

향파두리로 남쪽에는 **유수암로**가 이어진다. **유수암로**를 따라 유수암(流水岩)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 이름은 사시사철 흐르는 용천수인 유수암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유수암천 역시 삼별초와 관계가 깊다. 김통정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군이 향파두리성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많은 군사들이 거주하게 되자 식수와 더불어 군마를 먹일 물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삼별초 군은 이 **유수암천**을 두 칸으로 나눠 사람이 먹는 식수와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흘러가는 물은 그냥 두지 않고 군마를 먹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장수물

## 광성로 / 광령자종길 | 광령리와 고성리

**광성로**는 광령리와 고성리의 중심가를 지나는 길이다. 두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라는 의미로 각 마을의 한글자 씩을 합쳐 **광성로**라 했다. 지금은 한적한 마을인 고성리(古城里)는 삼별초가 주둔했을 때는 군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북적였을 것이다. 화려했던 삼별초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옛 성이 있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성리의 이름과 향파두리성의 흔적만이 삼별초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광령리(光令里)는 애월읍의 가장 서쪽에서 제주시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름에 대한 유래는 전해오지 않지만 마을이 생겼을 때부터 이 이름으로 불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령리 마을 중에 광령3리의 옛 이름은 자종동이라 한다. **광령자종길**은 광령3리내 고유지명인 자종동(自宗洞)을 반영한 이름이다. 고려말에 송자종이란 사람이 이곳에 정착해 살았다고 해서 불린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 마을에는 세 개의 샘물이 있는데 큰자종이물, 셋자종이물, 말젓자종이물이라 한다. 이 샘물들은 송자종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사용하라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장소로/녹고메길 | 녹고메

장소로는 장전리와 소길리를 연결하는 길을 의미한다. 소길리(召吉里)의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주어로 소의 길을 뜻하는 쉼질에서 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소길리는 좌랑못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이곳은 원래 물이 아니었고 좌랑 벼슬을 지낸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고 하는데 좌랑은 탐욕스러움이 많아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좌랑이 죽자 집터를 파내어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소길리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고려시대 석판묘가 있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고메

소길리 남쪽에는 유수암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녹고메 또는 노꼬메라 불리는 오름이 있다. 녹고메길은 이 오름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오름 중에 서쪽에 있는 큰 오름이 큰녹고메이고, 동쪽의 작은 오름이 작은녹고메이다. 이 오름은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한 시간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경사가 꽤 있는 편이라 등반이 쉽지 않은 않다.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 서쪽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만날 수 있다.